

선생님 전하시는 말씀이 위대한 이유.

작성일: 2011. 12. 16. 금. 새벽 2시경 연못팔각정

작성자: 장현순

* 예수님 말씀 *

(천국에 가 본 어떤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번쯤은 천국 가는 경험을 해 보고도 싶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 사랑하는 선생님 계신 이 땅이 천국이고 예수님 여기 함께하시니 천국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영계 가 보고 싶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번을 물어봐도

너의 대답이 똑같으냐?

(네, 예수님! 저에게 100번을 물으셔도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저는 영계 가 보는 것보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육신과 육신이 만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귀하고 큰 축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요. 선생님 빨리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 지혜롭다. 네가 지혜롭다.

네 선생이 그리 귀하고 귀하다.

육신으로 있는 너희 선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그토록 보여 주어 증거하였건만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전반기 때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 선생을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리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너희와 선생을 만나게 해 준 것이다.

너희가 선생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그것이 최고의 잔치집 역사다.

가치를 진정 모르는 자는

결국 심판으로 어려움이 있어, 발등의 불이 떨어져

가족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간신히 나왔지만

옛것을 미련하게 뒤돌아본 롯의 아내 같이 된다.

너희 선생은 나의 가치를 진정 안다.

너희가 가치를 진정 알면

너희 선생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나에게 나올 것이다.

(예수님! 왜 선생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위대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은 주인이기에 그러하다.

주인은 힘이 있다.

자신의 소유로 세입자와는 다르다.

세입자는 그 공간에서 살지만 원래 주인이 아니기에

집안에 있는 것을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주인은 살다가 싫증나면

마음에 들게 바꾸고 살다가

보수해야 할 곳은 고치고 다시 인테리어 하여

더 새롭게 쓰고 차원 높게 사용한다.

하지만 세입자는 있는 것 그대로 주어진 것 그대로

흠집나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혹여 바꾸고 싶다면 주인과 미리 의논해야 한다.

주인 허락 하에 고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 선생은 집 주인의 입장과 같아서

집을 다시 인테리어 하여 새롭게 만들 듯

말씀의 주인이기에

성경 본문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렇게도 요리하고 저렇게도 요리하여

다른 종류의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 성경 본문은 같은데

주제 말씀이 다르고 설교 내용도 다른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이번엔 이렇게 풀어 주시는구나... 역시 선생님이시다.’하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주인이기에 다르다.

성약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져다 전하는 세입자와 같은 다른 자들은

말씀의 주인이 아니기에 풀지 못한다.

자기 임의대로 풀어 말하면 불법이다.

자기 것인 척하는 자들은 거짓된 도둑이다.

세입자가 집에 주인 허락 없이 손대는 것과 같이
계약 위반이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성약의 중심자임을 무엇을 근거
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지금의 때를 예언해 놓았다.

다시 오는 나를 맞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이
다.

(구약, 신약 성경과 성약 성경의 차이는 무엇입니
까?)

구약의 성경을 근본으로 하여

2000년 전 신약역사를 열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나를 맞았어야만 했다.

구약 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통해 오신 것처럼

사람을 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세계를

신약을 통해 깨닫고

성약의 사람을 통해 재림하는 나를 맞으라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 시대 성약의 주인을 찾아 맞기 위한

지도와 같은 말씀이다.

지금 전하는 말씀이 성약 성경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신부 만드는 말씀이다.

성약 성경은 주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신부 만들기 위한,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1000년간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다.